

오직 믿음으로 받은 구원 - 복음으로 여는 갈라디아서 -

창세기2:16-17, 갈라디아서2:16

정윤돈 목사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자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축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첫 사람이 불신앙하여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오만가지 고통 속에서 모든 인간들이 살다가 지옥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주시고 이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사명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구원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하는 모든 말씀이 삶 속에 담이 되고 치유되고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다. 갈라디아지역은 사도 바울이 비교적 초창기에 복음을 전한 지역이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를 압축해 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반대로 로마서는 갈라디아서의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갈라디아서보다 나중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갈라디아교회와 로마교회가 모두 혼란스러워했던 내용은 구원과 율법과의 관계였다. 당시 갈라디아교회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안 지켜도 되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율법에 대하여 몰라서 그렇다.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3가지로 변화했다. 그것은 없어진 율법, 변화된 율법, 승화된 율법이다. 예를 들면 없어진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제사제도이다. 변화된 율법 제도는 각종 절기와 안식일이다. 특히, 안식일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모든 날이 주일로 바뀌게 되었다.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다. 승화된 율법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이 ‘원수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 승화되었다. 두 번째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흔들린 이유는 복음과 오직복음과 완전복음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복음과 오직복음과 완전복음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하고자 한다.

1. 첫 번째로,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다. 복음은 With이다.

(1) 복음이란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조건이 있다. 그것은 우리들이 절대 진리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이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절대 진리란 무엇일까? 하나님을 유일하신 창조주로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창세기 2장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에 빠져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다. 그 결과로 죽음이 오게 된 것이다. 이것을 근본문제라고도 하고 원죄라고도 한다.

(2)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이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참신

지자로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서 오셨다. 이에 대한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참 왕으로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창세기 3장의 근본문제가 해결되고 신분이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된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구원을 받는 데 1분도 걸리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실 것이다. 그래서 영접은 아미아미한 축복의 시간이다.

(3)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이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는 복음과 구원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말씀들이 있다. 이 복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전도를 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확신만 있다면 전도는 쉬운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겠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은 사도된 것이 주님께서 나를 직접 선택하셨다는 사도관에 대한 변증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주신 줄 믿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전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그러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

(4) 복음에 대한 핵심요절이다.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을 설명해주는 핵심적인 요절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5)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복음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복음의 말씀이다. 이것은 자신을 비운다는 말씀이 아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2장 19절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한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율법과는 관계가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을 세상 법에서는 ‘공소권 없음’이라고 한다. 재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지옥에 보내는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표준새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들을 다시 복음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모든 원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원죄와 사탄과 지옥에서 완전히, 깨끗이, 영원히, 해방과 자유를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기 바란다.

(6)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율법의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 갈라

다아서 5장 1절 말씀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구원을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2. 큰 두 번째로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오직복음을 하지 못하는 율법주의자들과 그 가르침들을 발견할 수 있다. 오직복음은 Immanuel이다.

(1) 당시에 갈라디아교회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오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섞인 복음, 틀린 복음, 망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말한다. 심지어 베드로도 오직복음이 되지 않았을 때도 있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었다. 베드로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받고 전도의 대역사를 일으킨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었다. 정말로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지 않으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된다. 그런 사람들은 전도하기 어렵다. 초창기 베드로의 모습이 그랬다. 순간적으로 전도도 할 수 있지만 지속되기 어렵다.

(2) 다음은 유대주의자들이다. 또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는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꾸지람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말씀이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3) 또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지만 안식일이나 유월절 등 날과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안상홍증인회), 제칠일안식일교회, 여호와증인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들은 오직예수가 아니다. 예수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더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4) 또한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3절이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대부분의 이단들은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한다. 그들은 모든 율법을 다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오직예수, 오직복음이 되는 사람만이 참 전도를 지속할 수 있다. 의식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아직 오직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오직이 되어야 흑암이 켜지고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3. 큰 세 번째로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들이 도전해야 할 완전복음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Oneness이다. 완전복음이 되었을 때 원나사가 될 수 있다. 그 때 237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의 빈 곳을 채우고 정복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완전복음이다. 그 구체적인 말씀을 찾아보겠다.

(1) 완전복음의 사람은 겸손한 사랑으로 서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이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2) 다음으로 완전복음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완전복음의 사람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류목사님께서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사람에 대해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내 자신에 대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모두 이 열매가 맺히기를 바란다.

(3) 다음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이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신령한 너희는 완전복음의 사람을 뜻한다. 말씀이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한다.

(4) 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권하고 있다. 복음을 받았으면 감사하며 다락방을 하며, 교역자들에게도 소중함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5)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열매를 맺을 때까지 참을 수 있어야 한다.

(6)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는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7) 또한 완전복음의 제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다른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야 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앞서면 안 된다. 자랑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등감을 갖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란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CVDIP를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의 최고의 언약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복음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율법주의와 무속, 점술, 우상에 속고 있는 237나라에 오직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영적통신망의 파수꾼, 영적 의사, 삼중직의 대사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린다.
3. Dream 꿈이다. 하나님이 주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먼저 찾고 24시간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집중하시기 바란다.
4. Image 이미지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시기 바란다. 이 시대에 완전복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해보시기 바란다.
5. Practice 실천이다. 이번 한 주간은 복음성구 51구절과 1분 구원의 길을 날마다 읽고 그려보기를 바란다. 어느 날, 300영접과 내 인생에 천명 이상에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편지로, 향기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천부장의 인생을 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려운 중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예배의 현장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천만배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세지말의 참된 오직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